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1. 7. 12.(월) 12:00
배포일시	2021. 7. 12.(월) 09:00
담당부서	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
담당자	과장: 김상진(042-481-3770) 사무관: 이철희(042-481-3768)



통계청, 수도권 경제총조사 비대면조사 중심으로 변경

-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인터넷조사 기간도 연장(7.9.→ 7.25.) -

- 통계청(청장 류근관)이 7월 30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「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」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비대면 조사 중심으로 변경해 실시한다.
 - 이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안전한 조사 참여를 위한 조치이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*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조사, 팩스, 이메일, 조사표 배포 후 회수(방역수칙 준수)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.
 - *품목조사가 필요한 광업·제조업 사업체, 대규모 사업체 등
- 인터넷 조사 기간도 연장하여 원래 7월 9일(금)까지였지만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일인 25일까지 연장한 것이다.
 -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또는 시·군·구 통계 상황실, 080 콜센터*(080-700-2020)로부터 참여번호를 제공 받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경제총조사 홈페이지(www.ecensus.go.kr)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. *콜센터 운영시간: 월~금 09:00~20:00 / 토 09:00~18:00
 - 대면 조사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,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한다.

□ 통계청은 “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경제총조사도 조사방법과 인터넷조사 기간도 변경하였다”라며

“특히 조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지만, 사업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가 정확한 통계작성의 밑거름이 되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

동 자료는 ‘출처 표시’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